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 상 국



현행 교육 문제를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전직 교장 한 사람이 교육 일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을 줄곧 문교부라고 일컬었다. 함께 있던 전직 동료가 핀잔주는 말을 했다. “문교부가 뭐야, 교육부지.” 그러자 역시 교장 출신인 다른 사람 하나가 깨들었다. “허허,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뀐 게 언제때...” 또 다른 사람 하나가 나섰다. “웃기고들 있구먼. 하긴 자네들 낡은 머리로 교육과학기술부란 이름 외기도 쉽지 않은 걸세.”

한국 이래 우리의 교육정책이 조령모개 했던 것처럼 그 명칭 또한 꽤 자주 바뀌었다.

1948년 건국과 함께 문화와 교육을 아우른다는 뜻으로 발족한 ‘문교부’가 1990년 교육 전담의 ‘교육부’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20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2008년 권권이 바뀌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통합되어 그 명칭이 ‘교육과 학기기술부’가 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명칭이 어떠한 그 기관

이 모두 이 나라의 교육 문제를 주업무로 다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메뉴 항목부터가 그렇다. 학생·학부모·교원·연구자 중 맨 끝의 연구자 항목만이 과학

학부모 등에 얽혀 개울 건넌 이야기

기술 정책 등 먼저의 과학기술부가 하던 역할을 맡고 있을 뿐 다른 항목은 모두 교육 현장 일들을 다루고 있다.

문제는 홈페이지 팝업창 제목의 섬뜩한 이다. 학원 부조리 신고 센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 등에서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말이 ‘학원 등’이지 자세히 보면 우리 교육현장 전반의 부조리를 겨냥하고 있다.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다고, 굶은 부위를 도려낸다면 선 숨쳐서 어설피 쓰는 같은 자칫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망칠 수도 있

다. 학원 교육도 교육인데 유독 그 비리 척결만을 강조하는 이런 엄포성 전략이 우리의 교육 뿌리와 그 바탕 모두를 불신하는 풍조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 현장의 불법행위 신고는 가르침을 받는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님과 관계를 이간질하는 결정적 밑거름이 될 터. 더구나 자기 자식이 다니는 학교와 선생님의 비리를 찾는 학부모들의 그 불신의 눈길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삼위일체의 결속을 미덕으로 지켜온 우리 공교육 현장의 학생·선생님·학부모들

의 관계가 오늘날처럼 이간 된 상태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오직 가르치는 신명 하나로 사는 선생님들의 얼굴은 학부모들의 자식 보호 이기주의 앞에서 더욱 참담하게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오래전부터 스승의 날에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학부모가 내민 촛지 봉투를 동영상으로 잡고 있는 제자들의 그 한심한 작태 속에서 어찌 가르침의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높은 교육열에 비례해 교육 현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소가 매몰찬 것도 임시방편으로 서둘러 만들어내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학생·선생님·학부모와의 끈끈한 믿음과 사랑의 줄을 다시 이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불신의 눈길을 거두고 사랑하고 따르고 밀어주는 교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가 그림다.

1960년대 초, 경상도 어느 시골 학교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갔다. 갈 때 짐경다리로 간넌 개울물이 소나기로 불어 돌아올 때는 아이의 아버지 등에 업혀 개울을 건넜다. 한사코 사양하는 선생님을 향해 아버지뻘 되는 아이 아버지가 간질한 눈길로 애원했다.

“선생님, 지도 효자노릇 좀 하게 하소.” 아이의 할아버지가 집에서 개울 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배움을 마친 뒤 서로 손을 잡고 다시 개울을 건너가는 그 집 아버지와 아들의 뒋모습은 생각만 해도 아름답다. “그때만 해도 가르치는 게 참 즐거웠지.” 아직도 문교부란 명칭이 입에 익은 예의 그 전직 교장의, 가정교육이 살아 있던 그때 그 시절 교육 이야기의 맺음말이다.

〈소설가·김유정문학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입학사정관계 서두를 일 아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입학사정관계

100% 확대’ 발언이 나오면서 광주·전남지역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계가 지방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입학사정관계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제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의한 인적·제도적 정비는 겨우 걸음마를 댄 수준인데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전국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할 인원은 2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하지만, 47개 지원대학이 지난 6월 현재 확보한 사정관은 203명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들이 높은 전문능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이 중시되는 전형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제대로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학생들의 가정환경, 교육여건,

출신 고등학교까지 고려하도록 돼 있는 점은 고교등급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비해 지방학생들에게 불리하리란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벌써 서울지역에는 입학사정관계의 컨설팅 10번에 350만원씩 받는 맞춤형 학원이 나오는 등 사교육 과열화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다는 입학사정관계가 오히려 고액 과외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입학사정관계는 전면 실시까지는 갈 길이 먼 제도다. 충분한 여건조성 없이 서둘러 시행을 정하고 목표 달성을 채근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하다. 양적인 확대보다는 충분하고도 자질을 갖춘 사정관 확보, 교육과 경험 축적, 정교하고 합리적인 평가모델 개발 등 전문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의 선발과정과, 고교의 기초적 평가자료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부터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다.

클린턴 방북 한반도 긴장완화 계기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

과 면담을 갖고 억류 중이던 미국 여기자

와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방북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던 북·미간 대화의 물꼬를 텠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클린턴의 방북이 개인자격이며 여기자 석방문제에 한정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남편이 김 위원장과 회동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북핵 제1차 위기 때인 1994년 6월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당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튼 과거의 궤도를 그대로 밟았다는 분석도 가능해진다.

미국과 북한이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북한

이 핵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고, 미국도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이 바뀌지 않은 이상 양국 접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여기자 석방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MB정부는 그동안 대북 강경론을 밀어붙이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빠뜨렸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일방적 지원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초래했다”며 비판으로 일관해 왔다.

우리 정부가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면서 북미관계 개선의 견인역을 자임하고 나시면 남북 간 대화국면 전환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도 미 여기자 석방에 이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장기 간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지난달 30일 나포한 연안호 선원 4명을 즉각 돌려보내야 남북대화의 발판도 마련될 것이다.



김 성 훈



“reader가 leader다”라는 말이 있다. 짧지만 독서의 중요성을 함축한 말이

다.

아동들 중에 책 읽기를 유난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 토할 것 같다, 눈이 아프다, 졸리다 라고 한다. 이런 경우 눈에 문제가 있는가 싫어 안과를 찾아도 “시력은 정상입니다” 또는 “안구건조증이 조금 있군요” 정도의 진단을 받고 오기가 일쑤다. 아이들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할 때 책상의 형광등 불빛을 신문지로 가리고 공부한 경우, 책을 읽을 때 두통이나 졸림, 졸이 많이 쳐진 책은 보기 싫어지는 현상, 글씨가 번져 보이는 증상,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훨씬 편한 경우, 남들보다도 이해력이 훨씬 떨어지는 경우 등을 경험해 본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도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한다.

다음은 비전문제로 시력은 단순히 정상적인 범위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볼

독서가가 ‘리더’ 된다

정교하지 못해 부모들이 아이들의 행동 양태를 보고서 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게 돼 어느 날 보니 아이가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책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과적 질환이 없을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할 문제는 ‘알렌즈후군’ (광과민성증후군)으로 눈의 마그노신경세포의 기능이상으로 특정 색상의 광투과율이 많아져서 시지각적 스트레스와 왜곡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다.

알렌즈후군의 핵심 증상은 책 읽기의 어려움(속독이 안됨, 읽기와 이해력이 부족, 오래 읽지 못함, 눈이 피로, 두통)을 호소하며 특히 광택지나 흰색바탕 종이 혹은 형광등 불빛이나 밝은 빛에서 더욱 어려움을 느껴 주변 인식의 폭이 좁고 시지각적 왜곡(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임)을 잘 일으킨다.

유전적인 소인을 많이 타고나기 때문에 부모 중에도 어느 한 분이 위와 같은 증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집안의 불을 자주 어떻게 한다든지 독서실에서 공부

수 있는 능력이라면 비전(Vision)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검색(Inspection)하고, 분별(Discrimination)하고, 식별(Identify)하고 해석(Interpretation)하는 등 시지각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Vision이 좋아야 비전(Vision)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크게 3박자가 잘 맞아야 하는데 첫째, 눈의 움직임이 원활해야 하고 둘째, 시지각적 프로세싱 기술이 좋아야 하고 셋째, 다른 감각기관 및 운동기관과의 협응 통합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중요하게 검사되어야 할 부분은 신경학적 ‘편측지배성’으로, 눈의 편측지배성이란 두뇌에 입력되는 정보 중 60%에 달하는 내용이 시각으로 입력되지만 우리는 좌우 어느 한쪽 눈을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주 사용하는 눈과 책과의 위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좌우 눈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좌·우 뇌의 원활한 연계 발달로 인해 책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도 쉬워지게 된다.

〈한의원장(한방신경정신과학박사)〉

기 고

위 길 환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는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이 주관하는 대학생 종합 운동 경기 대회이다. 2009년 5월 24일 새벽,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 결정은 145만 문화수도 광주시민의 열의와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온 시민이 한마음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평화와 인권, 문화와 예술의 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의 도시가

국민은 자신의 권리만큼 의무도 함께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자신의 권리만 존재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려는 보도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바로 도심지 빈집과 관련한 보도로,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지만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는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과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위상’ 정립 할 때

아닌 것이다. U-대회 개최를 계기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속의 광주”, “세계와 함께하는 광주”, “세계를 선도하는 광주”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해야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

170개국 1만5천명의 세계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될 광주는 거리, 건축물, 광고물, 그리고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포한 국제행사

와 전국체전을 치러 내면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많은 땀을 흘렸고 그 결과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지금까지의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세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야할 때인 것이다. 아직도 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불법 주·정차로 대표되는 무질서한 교통문화, 허가저물기 시작하면 흘러넘치는 유해광고물들, 곰터마다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는 광주시민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또한,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보여지는 모습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여름철엔 모기 등 해충 발생의 근거지가 되고 악취발생은 물론 비형청소년의 범죄 장소로 전락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마을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를 먼저 이행할 줄 아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세계를 선도하는 광주”의 도시 이미지 정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일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한비자(韓非子)는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의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세계를 선도하는 광주”의 이미지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냈듯이 우리 광주 시민들이 지금부터 내가 관리하지 않는 내집, 내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내부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고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6년 뒤에 있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한 대회가 될 것이다.

〈광주시 도시건축국장〉

無 等 鼓

밀은 BC 1만~1만년께에 재배되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식량 작물 중에 하나이다. 석기시대에 이미 유럽과 중국에서 널리 재배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밀의 재배 역사는 매우 길다. 평안남도 대동군 미림리에서 발견된 밀은 BC 200~1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며, 경주의 반월성지, 부여의 부소산 백제 군량창고의 유적에서도 탄화 밀이 나왔다.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 밀의 재배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흔한 식량은 아니었다. “너 언제 국수 먹어 줄래”라는 말이 있듯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흔히 잔치 때나 밀로 만든 국수를 맛볼 수 있었다.

일제가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쌀 공출로 인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밀 재배가 전면화됐다. 1938년 밀 생산량은 34만여으로 오늘날의 30배에 달했다.

해방 이후엔 미국 밀이 구호물자 명목으로 몰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국

산 밀의 생산량은 격감했다. 결국 정부 수매마저 중단(1984년)돼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다.

1986년 경남 함천군 초계면 대평마을에서 우리밀 한 포대가 발견된다. 이것을 씨앗으로 가톨릭농민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1991년), 한국우리밀협동조합(2004년) 등이 우리밀 살리기에 나선다. 그 결과 올해 3천 가구가 5천500ha에 밀을 심어 1만7천t을 수확하게 된다. 자급률 0%에서 1%까지 끌어올리는 데 12년이 걸린 셈이다. 그 중심에 전국 생산량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광산구 농민 등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서있다.

때맞춰 대기업들이 만든 국수를 맛볼 수 있어서 못 팔 정도다. 그러나 이제부터다. 적정수매가 보전, 우량종자 공급, 보관창고 확충 등 난제가 많다. 광주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힘을 보탠다지만 지자체만으로는 힘든 일이다. 정부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다.

/김주정 경제부장 jnews@kwangju.co.kr

우리밀 살리기



안전운전 위해 ‘전조등 켜기’ 생활화 해야

며칠전 가족과 여름휴가를 떠난던 길이었다. 비가 약간 왔는데 빗속에 안개가 조금 있었고 저녁때라 어둡어졌다. 그런데 커브길을 돌던 중 다른 승용차와 정면충돌할 뻔 했다. 차가 전조등 하나가 망가졌는지 한쪽만 전조등 불빛이 있다 보니 제대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이었다.

전조등은 어두운 길에서 꼭 필요하며,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전조등이 고장난 걸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고장 난 것도 모르고 무관심 속에 그냥 운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운전자들 누구나 한번쯤은 반대 차로에서 전조등이 한 개만 켜져 오토바이로 앞섰나, 가까이서 보면 한쪽 전조등이 고장난 차라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경우 잘못 판단하면 상대방과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름철 번덕스런 날씨가 잦다. 이럴 때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동차의 전조등 고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비비를 해 나와 타인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재진·광주시 북구 생동동

한국브랜드 ‘김치’ 세계화 위해 민·관 힘 모을 때

얼마 전 김치 수출이 4년만에 수입을 추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치 중주국으로서 그동안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김치 수출을 늘려갈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번엔 수출이 늘어난 것은 환율이 높아진 영향을 받기는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들의 우수한 배추·양념류 생산, 그리고 김치수출 가공업체들의 품질향상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전에 정부가 우리 한식을 세계 5대 음식

으로 육성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한식에 있어 김치는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번 수출 증가는 그 의미가 커 보인다.

김치를 많이 알고 외국인이 먹게 해야 한다. 그 방안이 무엇인지 정부와 김치수출업자, 농촌 생산자단체들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들어 전세계에 전파로 김치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정하·나주시 대기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虎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6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처부 2200-679 제 육 팀 2200-663 자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